

대화 이전의 것

차츰 윤곽을 드러내는 아이디어가 있다.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진 이 아이디어란, 이를테면 근대화란 문제이다. 지난 몇 해 동안 화폐의 인플레이에 못지 않게 새 술어의 인플레이를 겪은 우리는 또 하나의 새 술어를 어느 누군가 지어낸 것이라고 외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대화의 문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문맹(Literacy), 도시화(Urbanization) 그리고 대중 전달(massmedia)이다. 이 세 지수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특정 사회의 전통과 정치 및 경제의 인수로 영향을 받으며 상호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더 긴급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정신적인 기반 혹은 바탕을 찾는 일이다. 현재 한국에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는 지성인들은 거의 서구 정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서구 정신의 근원을 탐구하는 일이 가장 근본적인 일이면서도 지금까지 등한히 여겨 왔던 것이다. 서구 정신의 근원을 희랍과 로마 정신에서 찾는 것이 현대 인문 과학이 걸어 온 길이였다. 그러나 히브리적인 정신 기반 위에 서구 문명과 그 정신이 뿌리를 깊게 박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레바논 베이루트 여자 대학 교수 Harcourt 박사가 세삼스럽게 지적하였다.

한국의 근대화를 말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이러한 근대화를 이루어 갈 정신적 기반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문제를 탐구하는 일이 대단히 긴급한 일이다. 그것은 마치 건축의 기초 공사와도 같은 것

이다.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적인 정신이 현대 국가와 사회에 끼친 근본적인 영향을 충분히 연구하여야 한다. 그것이 히브리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위에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요청되는 구체적인 인간 존재의 자세를 뚜렷하게 보여 주었으며 우리가 아는 대로 현재까지 어떠한 정치 사상의 체제도 이를 묵살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근대화는 필연적인 역사적 과정이다. 교회는 히브리적인 역사관을 깊이 고찰하고 이러한 역사관이 공동체 형성에 주는 중대한 사명을 인식한다면 대화 이전에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닌 <진주>를 먼저 발견하고 소중히 여길 줄을 알아야 한다.